



The illustrations in this book were created directly onto discarded cardboard using coloured pencils, watercolour, acrylic paint, ink, and collage.

First published in Korean as 어느 날 똑똑 (*Knock Knock*) by BookGoodCome, Seoul in 2024

First published in English by Floris Books, Edinburgh in 2026. Story and illustrations © 2024 박지희 (Park Jihee)

English-language edition © 2026 Floris Books. English-language edition is published by arrangement with BookGoodCome through BC Agency, Seoul. 박지희 (Park Jihee) has asserted her right under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 Act 1988 to be identified as the Author and Illustrator of this Work.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without the prior permission of Floris Books, Edinburgh www.florisbooks.co.uk

Authorised EU Representative: Easy Access System Europe, Mustamäe tee 50, 10621 Tallinn, Estonia

gpsr.requests@easproject.com British Library CIP data available ISBN 978-178250-977-6

Printed in China by Leo Paper Products Ltd



Floris Books aims to make environmentally friendly choices, including choosing sustainable inks, when printing our books.





KNOCK
KNOCK







갑작히 벌어지면서 빙하기
때문이라고요. 두 번째 대멸종은 약
2억5000만년 전 데본기 후기에 일어났습니
다. 당시 지구엔 식물이 번성하면서 땅을 비
옥하게 만들었어요. 영양이 풍부한 흙이 흩
러 들어간 바다에선 조류(藻類) 생물이 많
이 늘어났답니다. 조류는 물속에 살면서 식
물처럼 햇빛을 받아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
들어내는 생물은 말하는데요, 이들
의 영양과 산소를 차단해 해양 생물
종에 이르렀다고 해요.
세 번째 대멸종은 2억5300만
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에 일어났
는데, 당시 지구엔 식물이 번성하면서 땅을 비
옥하게 만들었어요. 영양이 풍부한 흙이 흩
러 들어간 바다에선 조류(藻類) 생물이 많
이 늘어났답니다. 조류는 물속에 살면서 식
물처럼 햇빛을 받아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
들어내는 생물은 말하는데요, 이들
의 영양과 산소를 차단해 해양 생물
종에 이르렀다고 해요.
산화탄소는 지구 기온을
고 높이는 기온에 적응하
게 됐네요. 네
번째 대멸종은 약 2억5000만년 전 트라이아스기 말에 일어났는데, 당시 지구엔 식물이 번성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었어요. 영양이 풍부한 흙이 흩러 들어간 바다에선 조류(藻類) 생물이 많이 늘어났답니다. 조류는 물속에 살면서 식물처럼 햇빛을 받아 광합성으로 양분을 만들어내는 생물은 말하는데요, 이들의 영양과 산소를 차단해 해양 생물종에 이르렀다고 해요.